국별 리포트

케 냐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3.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8

Ⅳ. 국제신인도 11

Ⅴ.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재동 | 2017-03-22 14:27

Ⅰ. 일반개황

면 적	580천 km^2	G D P	692억 달러 (2016)
인 구	45.5백만 명 (2016)	1 인 당 GDP	1,522달러 (2016)
정 치 체 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Kenyan Shilling (KSh)
대 외 정 책	친서방 정책	환 율(달러당)	101.50 (2016)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4,54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인프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개시설의 부족과 수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인해 강우량의 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동 지역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면서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17년 6월부터 육상 및 철도를 통한 첫 원유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독립 이래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최대 부족인 Kikuyu족을 위시한 40개 이상의 부족들 간에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정치 상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3-22 14:27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제 성 장 률	5.7	5.3	5.7	6.0	6.1
재 정 수 지 / G D P	-5.7	-7.4	-8.3	-7.4	-6.4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5.7	6.9	6.6	6.2	5.5

자료: IMF.

□ **2016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6.0% 기록 추정**

○ 케냐는 2015년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감소, 인프라 투자 지속,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5.7%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16년 케냐 경제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농업 생산량 증가 및 가계소비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전년(5.7%)보다 소폭 상승한 6.0%의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경제성장률은 관광산업 회복, 인프라 투자 지속, 가계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16년과 유사한 6.1%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낮은 원유가격,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하락**

○ 케냐는 관개시설이 빈약하고 전력생산의 6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강우량에 따라 식량 및 전력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며, 이 2가지 요소가 물가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강우량 부족에 의한 식료품 가격 및 전력요금 상승이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감소효과를 넘어섬에 따라 6.6%를 기록하였음.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불규칙한 강우량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낮은 원유가격 및 수입물가 상승폭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6.6%) 대비 약간 하락한 6.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미 달러화 대비 케냐실링은 98.18로 전년(87.92)대비 10% 이상 평가절하되어 수입 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으나, 2016년 미 달러화 대비 케냐실링은 환율 변동폭이 축소되며 101.50을 기록하여 수입물가가 상승세가 안정되었음.

○ 2017년은 전년보다 양호한 강우량이 예상됨에 따라 식료품 가격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되어 전년(6.2%)보다 하락한 5.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소폭 하락 전망

○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8.3%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재정수지는 신규 철도노선 등 인프라 투자 지속,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County) 앞 예산배정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7.4%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는 독립 이후 중앙집권제가 시행되고 정부 요직을 차지한 Kikuyu족 등 다수 집단 출신이 자원을 독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2010년 개편된 신헌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 포함됨

- 지방분권은 총 47개의 지방정부(County) 제도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2015년 World Bank의 'Kenya Public Expenditure Review' 기준 지방정부 앞 배정예산은 정부 총 예산의 1/5에 해당됨

○ 2017년에는 6% 이상의 굳건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6.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의존적 경제임에도 농업 전반의 생산성은 낮은 상황

○ 케냐 경제는 농업 부문이 2016년 기준 GDP의 33%를 차지하는 1차 산업 중심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관개시설, 낙후된 영농법 등으로 농업 전반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임.

○ 양대 수출품목인 차(tea)와 원예작물(화훼, 과실 등)이 상품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2%와 9%로, 강우량 등 기후조건과 농작물의 국제시세 등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제조업 등 여타 인프라는 취약한 수준

○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이지만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18%에 불과하며,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미비, 숙련 노동력의 부족, 관료의 만성적인 부정부패 등이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2017'에서 케냐의 인프라 수준은 138개국 중 98위에 불과하며, 상수도 시설이 미흡하여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는 인구가 63%에 불과함.

나. 성장 잠재력

□ 주요 외화획득원인 관광산업이 회복 추세

○ 인도양 연안의 해변과 사파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케냐의 관광산업은 주요 외화획득원*이나, 2013년 이후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Al-Shabaab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음.

*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의 'Economic Impact 2015 Kenya' 기준 케냐의 관광산업은 2014년 GDP의 10.3%에 달함

○ 그러나 최근 치안상황 개선과 '국제회의 관광' 증가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회복 추세에 있으며, 2017년에도 예정된 국제회의(East Africa Retail Summit 등)로 인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석유자원 개발의 본격화로 2017년 원유수출 시작 예상

○ 최근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가스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사작업 진행에 따라 유전·가스전의 추가 발굴 가능성이 높음.

○ 케냐의 경우 현재 영국 Tullow Oil과 Royal Dutch Shell, 프랑스 Total 등 20개 이상의 외국기업들이 40개 이상의 유전 블록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있음.

○ Tullow Oil은 2012년 3월은 가미아(Ngamia) 광구에서 케냐 최초의 석유를 발견하였으며, 2014년 1월 South Lokichar 분지에서 원유매장량을 추가로 확인하였음.

- 한편, Tullow Oil사 자료에 따르면 케냐의 원유매장량은 2017년 3월 기준 7.5억 배럴로 추정됨

○ 2012년 최초 원유 발견 이후 송유관 등 기초시설 부족으로 상업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케냐의 일간지 'Daily Nation'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육로와 철도를 통한(Lokichar 광구→Mombasa*) 수출이 시작되고, 송유관을 이용한 본격적인 수출은 202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양을 접하는 케냐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로, 주요 항구와 국제공항이 있음.

- 케냐는 최초 수출목표를 일당 4,000배럴로 잡고 있으며, 연간 30억~60억 케냐실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희토류, 금 등 광업 부문의 높은 성장 가능성

○ 케냐는 석유와 천연가스 외에도 북서부 인도양 연안 크왈레(Kwale) 지역에서 희토류인 니오븀(niobium), 킬리마페사(Kilimapesa) 지역에서 금광, 키투이(Kitui) 지역에서 철광석 등이 발견되면서 광업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2013년 4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광업부'를 신설하였음.

- 케냐의 광업부문은 2015년 기준 GDP의 1.2%에 불과하나 2015년 11%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광업부는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2030년에는 GDP의 10%(70억 달러 이상)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을 통한 구조개혁 추진

○ 케냐 정부는 2008년 초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Vision 2030'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관광업, 농업, 제조업, 무역, IT, 금융 등 6대 주요 분야를 선정, 2012년까지 경제성장률 2배 달성 및 2030년까지 중소득국가 반열에의 진입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한편, 케냐 정부는 경제 성장의 장애물인 인프라, 기술 부족 등 구조적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운송,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음.

-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7' 에서 케냐의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은 190개국 중 전년(108위) 대비 상승한 92위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고질적인 부정부패,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추진 일정은 지연되고 있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6 Democracy Index'에서 167개국 중 탄자니아(83위)보다 낮은 92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 에서 176개국 중 145위를 차지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범위내로 유지

○ 케냐 중앙은행(CBK)은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또는 긴축을 적절히 취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안정에 주력하고 있음.

- CBK의 통화정책위원회는 2016년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로 유지* 하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인 5±2.5% 범위내로 관리되고 있음

* 기준금리 추이(%) : 8.5('15.5) → 10.0('15.6) → 11.5('15.7) → 10.5('16.5) → 10('16.9)

3. 대외거래

□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원유 등 수입 증가로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 등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2016년 37억 달러),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2016년 23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2016년에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6.8%) 대비 다소 하락한 -6.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상수지	-4,872	-6,339	-4,310	-4,444	-4,581
경상수지/GDP	-8.8	-10.3	-6.8	-6.4	-6.1
상품수지	-10,221	-11,436	-9,580	-9,631	-10,213
수출	5,803	6,174	5,982	6,399	6,858
수입	16,024	17,610	15,563	16,030	-17,071
외환보유액	6,547	7,878	7,515	7,202	7,508
총외채잔액	16,161	22,229	24,449	27,899	30,984
총외채잔액/GDP	29.3	36.2	38.6	40.2	41.5
DSR	9.9	27.6	17.6	18.9	26.3

자료: IMF, EIU, OECD.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IMF 지원 등으로 외환보유고 유지

○ 외환보유액은 최근 수년간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송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IMF 지원 등으로 인해 2011년 42.3억 달러에서 2016년 72.0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75.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2015년 2월 약 6.9억 달러에 이어 2016년 3월 총 15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협정을 승인(기간 24개월) 하였으며, 이는 당장의 부도위기 대처라기보다는 외부환경에 변화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예방적 차원임.

* Stand-By Arrangement 10억 달러 및 Standby Credit Facility 5억 달러로 구성됨.

□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외차입으로 외채규모 증가**

○ 케냐의 총외채규모는 인프라 부문 투자에 투입될 재원의 마련 등을 위한 대외차입에 따라 최근 계속 증가하여,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40.2%(2015년 38.6%), D.S.R.은 18.9%(2015년 17.63%)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는 경제 성장의 장애물인 인프라, 기술 부족 등 구조적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운송,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그 중 표준궤 철도사업(SGR)의 경우 472km의 몸바사-나이로비 간 1단계 구간이 2017년 중반 준공 예정임

○ 다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2년 108.0%에서 2016년 44.7%로 대폭 하락하는 등 IMF의 지원 등으로 인해 외채만기 구조는 개선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상황

□ **2017년 8월, 대통령 선거 및 총선거를 앞두고 긴장 잠재**

○ 2013년 3월의 대통령 선거(5년 중임제)에서 초대 대통령 Jomo Kenyatta의 아들이자 연합정부의 부총리인 국민연합당(TNA)의 Uhuru Kenyatta 후보가 당선되어 4월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정치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한편, 2017년 8월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앞두고 폭력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공정한 선거를 위해 2016년 9월 모든 정당이 새로운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위험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5년 중임제에 따라 Uhuru Kenyatta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마지막 5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됨

-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고 2013년 치러진 선거에서 현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6년 10월 케냐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이 사임을 표명한 후 2016년 9월 모든 정당이 합의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되었음.

- 2007년 12월 총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선거 시비로 전국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타 부족에 대한 폭행 및 살육이 벌어졌음. 이 사건으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5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 3월 대선에서는 2007년 유혈사태에 대한 우려로 UN 등 국제기구에서 감시단을 파견한 바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샤바브(Al-Shabaab)에 의한 위협 상존

○ 케냐는 2011년 10월 라무 섬을 방문 중이던 프랑스 관광객의 납치를 계기로 소말리아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샤바브(Al-Shabaab)에 대한 대테러전을 시작하였음.

○ 미국, 영국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2012년 9월말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와 알샤바브 집단의 본거지를 장악하며 알샤바브에 대한 전쟁에 승리했으나, 잔존 세력이 케냐와 주변국에 대해 보복 테러를 자행하고 있음.

○ 알샤바브 조직원들은 2013년 9월 Nairobi의 Westgate 쇼핑몰 테러(67명 사망), 2015년 4월 모리 대학교 가리사 캠퍼스 테러(148명 사망), 2017년 1월 소말리아 국경 케냐군 공격(50명 이상 사망 추정) 등 대규모 살상을 자행하며 케냐의 치안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케냐의 테러 위협은 케냐의 장기적인 민족적 대립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이며, 케냐 내 소말리아 난민의 존재는 추가적인 사회·정치적, 치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부족간 갈등은 권력 분점을 통해 상당 부분 진정

○ 케냐는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Kikuyu족과 4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1963년 독립 이후 부족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2007년 대선 후 부정선거 시비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음.

○ 2007년 말의 대선으로 촉발되어 3개월간 지속된 유혈분쟁은 2008년 4월 대연정 구성으로 일단락되었으며, 2013년의 대선이 평화적으로 치러진 이후 부족간 갈등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분석됨.

3. 국제관계

□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중심국이자 실세

○ 케냐는 탄자니아와 더불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도국으로,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국가간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인도양을 접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지역협력체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의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관계 유지

○ 케냐는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및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로 남을 전망임.

- 미국은 2015년 4월 對케냐 원조액(2015년)을 약 5억 5,300만불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5년 미국의 대외 원조 상위 국가 중 8위에 달함. 또한, 미국은 2017년 1월 알샤바브와의 대테러전을 위해 4억 1,8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승인하였음.

- 2013년 8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 하였으며, 중국 방문을 통해 50억 달러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몸바사-나이로비 간 철도건설 프로젝트 등)을 얻어냈음.

- 한편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자료 기준 케냐의 2014~2015년 평균 공적개발원조(ODA) 수혜액은 총 16억 2,500만 달러로 전체 ODA 규모 중 8위를 기록하였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앞 채무재조정 경험 보유

○ 케냐는 2004년 파리클럽과 3.5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바 있음. 2016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로부터의 대출규모는 단기 2.2억 달러, 중장기 18.2억 달러 등 총액 20.4억 달러임.

- 이 가운데 중장기대출 0.7억 달러에 대해 연체 중이며,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04년 6월 케냐에 대하여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Moody's는 B1, Fitch는 B+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6 (2016. 6)	6 (2015. 6)
Fitch	B+ (2016. 12)	B+ (2016. 7)
Moody's	B1 (2016. 2)	B1 (2012.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64. 2. 7 (북한과는 2008년 9월 수교)

□ **주요 협정** :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8), 문화협정(1980), 항공협정(198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14)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6년 12월말 기준 29건, 10,154천 달러

□ **교역규모**

< 표 4 > **한·케냐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344,520	256,531	162,322	기타석유화학제품, 철강판
수 입	28,135	28,304	104,477	기호식품, 동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케냐 경제는 인프라 투자 지속, 농업 부문의 성장 및 가계소비 활성화 등으로 인해 2016년 6.0%의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관광산업 회복 및 인프라 부문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한 6.1%의 성장을 시현할 전망임.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재정지출, 자본재 및 에너지 자원의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Al-Shabaab는 2013년 9월 수도 Nairobi의 Westgate 쇼핑몰, 2015년 가리사 캠퍼스 테러 등을 자행하며 케냐의 사회 안정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석유개발의 진행으로 금년 6월 중 동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원유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개발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음.

조사역 이기성(☎02-6255-5727)
E-mail : ks.lee@koreaexim.go.kr